로마서 #19 **그리스도인의 자기정체성(3)** 로마서 6:12-14

(의義의 무기)

저는 지난시간, 로마서 6장 1-11절의 말씀으로, 두 가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1) 죽은 자 2) 산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이해해 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요. <나도 죽었다 살았어>하는 식(式)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좀 더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학적(神學的)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학은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다 신학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 우린 우리가 죽고 살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며, <하나님에게 대하여 산자>라는 말씀을 이해(理解)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십자가(十字架)>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은 6: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十字架)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왜 그의 전(全) 서신에서 20번이나 언급되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아끼다가 여기에 단 한번 언급하였을까요?

아마도, 시도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대신 형벌을 받는 대속(代贖)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단지 단순한 죄사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12절부터 다시 강조됩니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罪)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罪)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法)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恩惠)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에 우리의 3번째 정체성(正體性)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의(義)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義)의 무기(武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I. 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계속 지배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罪)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건 죄가 지배하려든다는 것.. control, dominate 하려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罪)가 **의인화**(擬人化) 되어있습니다. **인격화**(人格化)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그 죄를 조장하고 사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한 것입니다. 죄의 근원과 사령부는 마귀사탄입니다. 그들이 죄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장본인(張本人)입니다.

범죄에 대한 성경적 정의(正意)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삽시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죄가 나를 지배하여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술로 비교 해봅시다. 애주가(愛酒家)들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正體性)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와 같이 죄(罪)는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생성해 내는 것은 마귀사탄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강력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만, **죄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사실입니다. 영적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 사실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가 죽고 하나님에게 살았는데, 육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육신안에 있는 죄의 정욕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접촉점(接觸點)이자 우리의 취약점(脆弱點)입니다.

사탄(satan)은 아마도 이렇게 주장(主張)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희의 죄가 대속되어서, 너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된 것은, 내게는 억울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이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나의 밥이며, 내 제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왕(王)이 되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특권(特權)조차도 스스로 의미 없이 여기고, 스스로 망가질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왕(王)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정욕의 불씨를 제물로 삼아, 이미 죽은 우리에게 거짓의 허상(虛想)을 뒤집어 씌우고,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조종(操縱)하고, 죄를 계속 지음으로 인해,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特權)을 무의미(無意味)한 것으로 인식(認識)하도록 작업(作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사욕이 있다는 것을... 사욕을 영어성경에는 the lusts, evil desires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만하고 좌절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 안에 evil desires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십시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안에서 반응하는 세포(細胞)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전히 자신 안에 죄에 대해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자칫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받은 놀라운 축복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탄의 책략(策略)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런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切望)하거나 포기(抛棄)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마귀사탄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는 명확합니다.

베드로사도는 벧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

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바울은, 에베소서 4: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잠잠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때론 방관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잡지도 않고 박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일관된 원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II.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 우린 여전히 선택권(選擇權)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12-14절을 다시 보십시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罪)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罪)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法)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恩惠)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의 바탕에 있는 사상(思想)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향한 자세를 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존중(尊重)의 자세,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보이십니까?

1. 우린, 몸의 사욕(私慾), 욕망(慾望)에 순종 안할 수 있는 존재란 것입니다.

그들의 지배(支配)와 주장(主張)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굴복은 필연(必然)이나 운명(運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허구의 말씀이지요, 순종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순종하라고 하여 기죽이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있다고는 하지만 순종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2.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든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에게 드리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존재라는 것입니다.

* 마귀의 연막탄은, <너는 죄의 욕망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 세상도, 우리는 인간의 본능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너>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마귀의 전략은 <할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할 수 있다> 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법안을 마련하고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접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은혜요,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서도 강제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내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選擇)하고 싶습니까?

흔히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한계점) 나타나는 몇 가지 태도 가 있습니다.

첫째는,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 형입니다.

둘째는, 남은 인생, 최대한 쾌락을 즐겨보자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썩을 몸 멋대로 살아보자." 소위 '케세라 세라(Que Sera Sera)'형(形)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용해보자"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썩을 몸 아껴 뭘 해! 주님께 충성 하자"하는 형(形)이 있겠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죽을 몸입니다,. 죽을 몸의 사욕을 알고, 놀래지 말고, 복종(obey) 하지 말고, 그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창4:7).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가인을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쫓아가서, 눈앞에 잘나가는 동생을 시기하고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의 몸이 원하는 몸의 사욕을 쫓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암흑과 방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인과는 달리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III.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의의 종을 선택할 때 주시는,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罪)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法)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恩惠) 아래에 있음이라."

14절의 새번역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For sin shall not be your master, because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이것은 새로운 configurations 환경설정(環境設定)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영적인 증강현실(增强現實)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의 환경,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너희가 법(法)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恩惠) 아래에 있음이라."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 우리는 법아래 있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어떤 법일까요? 율법(律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백성에게 광야에서 주신 법입니다. 이 법에는 상(償)과 벌(罰)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인간은 이 법에 의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말씀이 요한계시록(啓示錄)에 있습니다. 이 구절의 장면은 천국에 들어가기전 최후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0:12-15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이 법과 은혜의 비교입니다. 생명책은 은혜아래 있는 자에게 주신 책이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녹명은 아시는바대로 하나님의 은혜 어린양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의 기록인 책들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法)아래 있지 않고 은혜(恩惠)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救援)받기 전에는, 법아래 있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 심판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칭의(稱義)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나는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grace zone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아래 있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어떻게요?

앞에서 베드로사도의 벧전 5:8절을 인용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런데 뒷 말이 있습니다. 9-10절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make you perfect, stablish, strengthen, settle you. 이것이 얼마나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의 무기로 사는 것이냐.

위에서 잠간 에베소서 4: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어떻게 마귀가 일하는가 하는 것을, 그 말씀의 전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25-32절을 보면서 그 내용들, 대강 7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3.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4.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5.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6.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7.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 진실된 언어, 분노의 조절, 도둑질대신 근면, 구제, 선한 언어생활, 일관된 삶. 용서와 친절... 이런 것들이 의의 무기로 사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로마교회는 에베소교회보다 사정(事情)이 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롬 6:17-18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해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롬 6:22절에서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프란시스 쉐퍼는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자신을 마귀에게 주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마귀의 병기가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당신과 내가 죄로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귀에게 줄때, 마귀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날선 검으로 사용합니다. - 슬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되어 마귀의 검이 되어 하나님과 싸우다니요" (프란시스 쉐퍼 로마서 p232) * 그 반대가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검이 되어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어느 설교가가 미국의 LA거리를 지나다가 한 젊은이가 붉은 글씨로 인상 깊은 문구를 새겨놓은 티셔츠를 입은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I am a slave for Christ" 라는 문구였습니다. 싹 지나치고 생각해보니까 기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신앙고백을 써놓았다는 것이 귀하게 보여서 몇 걸음 지나간 후에 다시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의 등 뒤에도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Who's slave are You?"라는 글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의 종이며, 누구의 종입니까?

맺음 : 성화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종이냐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사탄이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만(엡2:2)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권속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결한 존재** (엡2:22)"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사욕과 그것을 공격해오는 죄(사탄)의 실체로 인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일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진 의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사용해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거룩이며 영생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의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